□초 록 12□

# 정상인에서 발견되는 성대구에 관한 연구

분당제생병원 이비인후과 음성언어연구실

**안 철 민 · 최 영 화***

**목 적** :

성대구는 성대점막에 패임이 있는것으로 패임의 깊이와 형태가 다양하다. 성대구로 인해 생리적, 음향학적, 기류역학적 변화가 나타나며, 성대질환과도 관련된다. 그런데 성대구가 음성이상 및 과거병력이 없는 정상인에서도 많은수 관찰되고 있다. 따라서 본 연구자들은 정상인에서 나타나는 성대구의 정도와 형태, 음성특성을 살펴보고, 양성성대질환자와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.

**방 법** :

2002년 1월부터 7월까지 후두 및 음성과 관련된 과거병력이 없으며, 현재 자각하는 음성 및 후두 병리가 없는 정상인 50명(남 18명, 여 32명)과 양성 성대 질환자 247명을 대조군으로 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. 평균 연령 40세로 16세부터 74세까지 분포하였다.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 및 상담을 통한 사례력을 조사하였고, 화상회선경술을 실시해 성대구의 유무와 형태를 검사하였다. 또한 청각심리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환자의 음질을 평가하였고, 음향학적 검사와 공기 역학적 검사를 시행하여 성대구의 유무에 따른 비교를 실시하였다.

**결 과** :

대상자에서 성대구의 발생 빈도는 60% 였고, 양성 성대 질환에서는 59%였다. 성대구의 형태는 얕은(shallow) 패임이 가장 많았고, 깊은 패임(deep)은 적게 나타났다. 또한 일측성 보다 양측성이 많이 나타났다. 양성성대질환을 동반하는 경우도 14%나 되었다. 성대구를 가진 대상자는 음성의 변화가 자주 나타났고, 가끔씩 목의 통증과 부은 느낌을 표현하였다. 성대구를 동반한 정상인은 성문닫힘은 정상이었으나 성대점막의 진동 및 파동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. 또한 최대발성시간 및 기본주파수, 성문하압, 기류율은 정상범위에 포함되었으나 수치가 낮게 나타났다. 이밖에 Jitter, Shimmer, NHR 수치는 정상범위에 비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.

**결 론** :

정상인에서도 성대구가 빈번히 나타났다.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성대질환으로 분류할 수 있는 성대구의 기준과 미미한 성대구가 음성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.